

도시의 문화·환경보전에서는 녹지, 생물, 문화재, 문화시설 지표였던 자원의 다양성을 안정성으로 제시하고 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생태·문화 탐방로, 지역별 랜드마크를 다양성 세부지표로 제시하였다. 지역별 랜드마크는 도시 수호 및 형국보완 풍수의 비보 기능을 가지는 조형물 및 도시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지표로 행정구역 내 문화재, 지역 생태·문화축제, 특화공원 등을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자원의 쾌적성은 생태계의 연결로 수변, 경관지표를 생태통로, 녹지연결, 물의연결, 바람길 조성을 평가요소로 풍수 잇기, 경관 잇기로 구분하였다.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생태적 공간 지표이며, 지역 전체의 녹지연결 체계로 입체적인 공원 녹지개념으로서 생물과 인간이 공존 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하였고, 도시 내 하천 생물의 건강한 생육환경과 자연경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오픈스페이스로서 하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표로 물의 연결과 바람길 조성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안전성을 1인당 공원면적, 녹지율, 원림의 보전, 습지면적을 평가요소로 도시녹지, 도시습지, 문화시설 인벤토리로 구분하였다. 1인당 공원면적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도시문화의 형성을 위한 전제요소로 국가공원부터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 도시 내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태공원 및 수목원 등이 있다. 녹지율은 인간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자연을 통한 쾌적한 생활을 위한 지표로 완충, 경관, 연결녹지가 있다. 원림의 보전은 도시 내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지표로 자연상태의 숲,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법규에 의한 보호림과 기타 마을숲, 사당숲 등이 있다. 습지면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생활과 도시 내 재해방지 및 미기후 조절을 위한 지표로 습지, 내륙습지,